

우리지역의 김해학

우리대학 설립자의
이해와 경주 최부자

글로벌경영대학 교수 서갑수









<http://blog.naver.com/mzsj64>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인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니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과 精이 넘치는 인제대학교



2015년도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전경



인제대학교의 시작

2015년 올해는 仁濟大學校가 開校한 지 36주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대학의 모체인 白病院이 創立된 지 8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서울대 전신) 외과
주임교수이던 백인제 박사는 現 서울백병원
자리에서 운영하던 우에무라 외과의원을 인
수하여 오늘날 백병원의 모체를 만들었다.



백인제 박사



- 백인제 박사[1898년1월 28일 ~ ?]는 한국의 외과의사이며, 백병원의 설립자이다. 평안북도 정주(定州) 출신. 백봉제의 형이며 백낙청, 백낙서, 백낙환은 그의 조카가 됨.
-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오산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
- 1928년 일본 도쿄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 조선의사협회 간사 등을 지내고 1940년 서울에 백인제외과의원를 개업함. 해방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주임교수 및 서울의사회 초대 회장, 대한외과학회 회장 등을 맡았으나 한국 전쟁 때 남북됨.



백봉제 변호사

- 평안북도정주군 출신, 설립자인 외과의사 백인제의 동생.
- 정주 오산학교와 일본교토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 지방의 군수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산업부 이사관을 지내는 등 조선총독부 관리로 근무.
- 광복 후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백인제와 함께 백병원을 설립,
- 출판사인 수선사(首善社)를 운영해 문학서적을 출간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백인제와 함께 서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북조선으로 납치됨.
- 백인제 박사도 납북되어 형제가 함께 실종됨.
- 일찍 사망한 첫 부인에게서 얻은 맏아들이 인제대학교 설립자 백낙환, 차남인 백낙청은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내는 등 한국의 명문가로도 알려져 있음.
- 3남 백낙서가 김치열의 딸과 결혼하여 백봉제와 김치열은 사돈 사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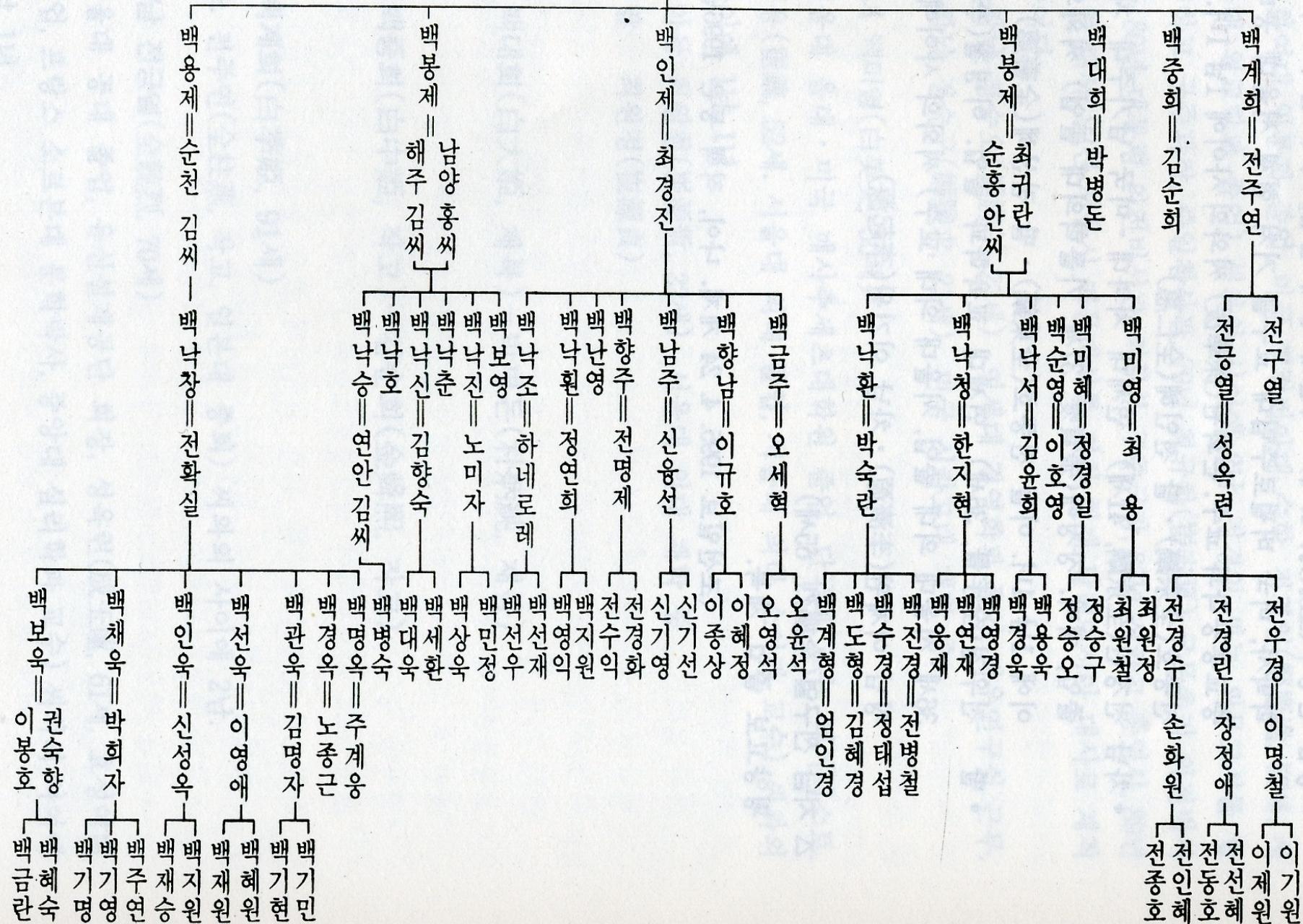


백낙환 명예총장



- 법관 백봉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그를 낳은 지 5개월 만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남.
- 1939년 고향 평북 정주군을 떠나 서울로 유학, 휘문 중학교에 입학. 이후 큰아버지 백인제의 댁에서 통학 함. 큰아버지 백인제 박사의 뜻에 따라 경성제대 의예과로 진학.
- 한국전쟁 후 백병원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저동 백병원을 다시 짓고, 부산 백병원, 서울 상계 백병원, 일산 백병원, 해운대 백병원을 새로 지음.
- 1979년 부산 백병원과 함께 시작한 인제학원과 인제의과대학은 10년 만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다. 1989년 2001년까지 12년 동안 인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이후 2014년 2월 까지 인제학원 이사장 역임.
-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회장, 서재필 선생 기념 사업회 회장, 장기려 선생 기념사업회, 도산안창호선 생기념사업회 회장에 선출됨.

백희행 = 청주 한씨





일반현황

교수 : 1,022명 (일반학과:339, 의학과:683)

학생 : 학부 10,421명 / 대학원 1,316명

직원 : 226명



서울백병원



부산백병원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인당관(대학원 대학)



김해캠퍼스



대학이념 “仁術濟世·仁德濟世”

교육이념

自然保護
生命尊重
人間 사랑

교훈

正直
誠實
勤勉

교육목적

도덕적 인간
협동적 인간
실천적 인간



이사장
이혁상 박사



총장
차인준 박사



초기 백병원

1932 백병원 창립 1946 최초의 민립공익 재단
법인 백병원 설립 1979 인제의과대학 설립·개교
1984 김해캠퍼스 시대 개막 및 대학원 설립
1993 민족의 대학·세계의 대학 제창



- 낙동강 살리기 환경정화 운동

교육이념의 실천 / 자연보호

1996년 환경의 날 선포식



1999년 환경부 조선일보 환경대상



2014년 총 110차 / 총 46,850명



문화일보 제 3490 호 2003년 3월 31일 월요일

‘낙동강 살리기’ 월말대청소 8년째

인제대 '환경보호' 실천

맨 낙화 이사장이 암자



금연캠퍼스 & 그린캠퍼스 운동

교육이념의 실천 / 자연보호

Green Campus

2003년 4월 2일 수요일 경남신문

대학내 담배연기 '완전 퇴출'

김해 인제대, 교내 전역 금연…2년만에 정착

2년전 학교내 금연운동을 추진한 인제대학교가 물들어 완전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는 강의실은 물론 강당, 주차장 등 교내 전 구역이 금연 지역이다. 금연운동은 학생 고수들은 물론 학교를 찾은 일반인들도 동참으로 유도해 인제대를 찾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지난달 29일 오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출판대학에 즘식관 수백명의 사람들은 행렬 같이 담배를 접제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학부모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어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공기, 황결한 분위기를 반겼다. 학교측은 「처음에는 일부 학생들이 회장실에서 물레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금연운동은 완전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한동안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의 인적사상을 파악해 금연 서약을 받기도 했단다 고 소개했다.

김해는 「처음에는 일부 학생들이 회장실에서 물레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금연운동은 완전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한동안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의 인적사상을 파악해 금연 서약을 받기도 했단다 고 소개했다.

금연운동은 완전한 학생들에 대한 재제와 관련, 정책성 선발 등에 불이익을 입고 병원도 거론됐으나 실제 적용은 사려는 없고 서약은 받지만 결국 자신의 양심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해는 「처음에는 일부 학생들이 회장실에서 물레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금연운동은 완전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한동안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의 인적사상을 파악해 금연 서약을 받기도 했단다 고 소개했다.

금연운동을 주도한 이은구 총장은 「교고 전 구역에 금연운동을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했으나

2003년 4월 2일 수요일 경남신문

2001년 No Smoking Campus



2010년
5월 '제23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기관포상을 수여.



- 북한어린이 돋기

교육이념의 실천 / 생명존중



2001년





교육이념의 실천 / 생명존중



베트남유학생
의대 및 타 단과대학 초청,
전액장학금 지급 및 교육





교육이념의 실천 / 생명존중



▲ 좌부터 인제의대 재학당시, 교활과 함께, 인제의대 특강 모습



교육이념의 실천 / 인간사랑

인제인성대상(1999 개교 2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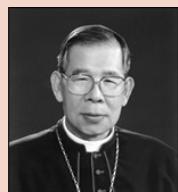
弟2 가나안 農軍學校



金亨錫



韓勝憲



金壽煥



姜智遠



柳達永



미카엘라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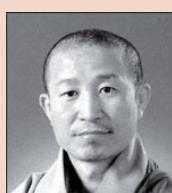
金學洙



俞暻在



全鐘暉



道法스님

제3회 인제청년상



제3회 인제청년상 수상작 발표

우수상

김종학 **건축과 장소, 잃어버린 '우리'를 이야기하다**
공간이 기억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서

김학준 **차가운 열광 : 일베의 감정동학**

장려상

최나래 **소통과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노숙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빅이슈'를 중심으로

김진천 **아파트의 변화에서 사라진 것들**
시대별 아파트 간의 가상투신체험 비교를 통하여

명수민 **이해, 세계에 편안히 거주하기**



교육이념의 실천 / 인간사랑

2001년 국제인력지원연구소 출범



2002년 12월 2일 월요일

조선일보

◇ 국제대가 개설한 '해외입양아 프로그램'을 수료한 입양이 출신 유학생들이 며칠동안 최고 커뮤니티를 신축하고 있다.

“한국과 한국부모 이해해요”

인제대, 입양인 교육수료식

이들은 모두 한국을 어렵게 찾았다.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경이 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은 시장을 관리하거나 유학을 해야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을 남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서다. 미국으로 입양된 로버 단디(41·미국)는 국영 이해당은 한국에 오기 위해 일상인 커파울리스 바다이 가족, 천연수를 관광지에서 대신 지난 9월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다. 로버는 “아버지와 딱상 얼굴을 대하니 그동안 향여인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녹아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들 모두 자기 ‘피를’ 찾은 건 아니다. 어떤 가수에서는 모래를 세워하고 아무도 부모를 찾지 못했다. 언니이 대도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렸거나 다른 평계를 대비 만나기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가을학기를 수료한 후 출생 또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성표(23·미국 입양) 교수, 경무, 지진해 어버지를 찾았지만 당시 처음을 제외하고 계속 만나주지 않고 있다. 이군은 “이유가 몇 가지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히 언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지 만 그래도 아버지를 미워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全鳳基기자



- 바르게 삽시다 & 선거공영제

교육이념의 실천 / 인간사랑



인제인성교양학사 운영

2002년

2002년 11월 14일 목요일

조선일보

대학생들 “우리가 투명·공명선거 앞장선다”

인제大 총학선거 ‘완전공영제’ 실시

대신 학생 후보들은 ▲학교측이 제시한 금액 내에서
보수를 치르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으며
▲전용 계시판 외 강의실이나 화장실 벽에 선거홍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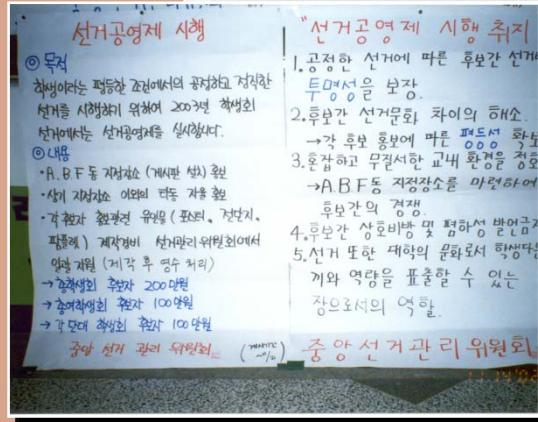
을 이지하게 봐야만 기쁜 관행을 버리기로 약속했다.
선거공연체 도입은 지난날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이 제안했다. 학교측은 최근 후보를 내놓지 못할 정도로 학생자치기구가 불과거대화는 상황이 되어 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1000만원대인 선거거금을 대폭 줄이고, 상대 후보에게는 내방을 금지하는 대신 그 공모세금이 약속을 이행된다.

학교 지원금 200만원 내선 최종기

인재대 중앙선기관리위원회 손원일(26·정보통신대학 4년) 위원장은 “선기공연제는 선기자금 등 조직적
뒷받침이 없는 사람들도 선기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 학생회가 대학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생자치기구로 한 단계 성숙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도 인제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에는 모두 12명이 임명되었다.

/廉康洙기자 ksyoum@chsaun.co





교육이념의 실천 / 인간사랑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대학
열린 시설, 열린 교육





교육이념의 실천 / 인간사랑

**해외봉사활동 및 해외인턴십, 어학연수를
통해 지식배양과 좋은인성을 갖춘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봉사자가 아닌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제대, 학생 213명 동계 해외파견
미국, 영국 등 16개국으로 해외인턴십, 어학연수, 해외봉사, 현장학습





교육이념의 실천 / 인간사랑



인제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신학기 시작을 나눔으로 시작해 시선을 끌었다.

12일(목) 본관 앞 광장에서 공과대학·의생명공학대학·사회과학대학 학생회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해 '동행: 한 줌의 쌀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위 20위

포스텍	7374만3000원
동명대	2952만3000
연세대	1842만2000
성균관대	1614만
광주대	1579만5000
아주대	1478만8000
한림대	1466만1000
고려대	1458만
한국기술교육대	1406만6000
가톨릭대	1395만4000
한양대	1386만5000
인제대	1367만9000
한국항공대	1256만1000
한국산업기술대	1255만4000
울산대	1250만5000
경희대	1245만
서강대	1228만4000
인하대	1206만2000
이화여대	1201만9000
삼육대	1143만

교수 1인당 연구비 상위 20위

포스텍	3억5489만원
한국산업기술대	1억5547만5000
성균관대	1억5526만7000
한양대	1억3892만2000
연세대	1억3200만8000
한림대	1억1850만8000
아주대	1억682만6000
인하대	9392만7000
한국기술교육대	8405만9000
가톨릭대	8375만6000
광운대	7922만6000
건국대	7892만4000
서강대	7749만4000
이화여대	7079만9000
인제대	6718만3000
세종대	6679만5000
고려대	6486만3000
한국항공대	6207만
명지대	6196만3000
영남대	5952만3000



등록금 환원율 상위 20위

포스텍	1468.1%
한국기술교육대	361.3
연세대	228.5
성균관대	210.1
한림대	205.5
인제대	203.4
아주대	195.9
가톨릭대	194.2
울산대	184.4
한국산업기술대	175.6
한양대	174.4
한국항공대	170.9
고려대	169
서강대	168.2
인하대	164
건국대	158.3
원광대	148.2
경희대	148.1
진주국제대	148.1
이화여대	148

교수 1인당 학생 수 상위 2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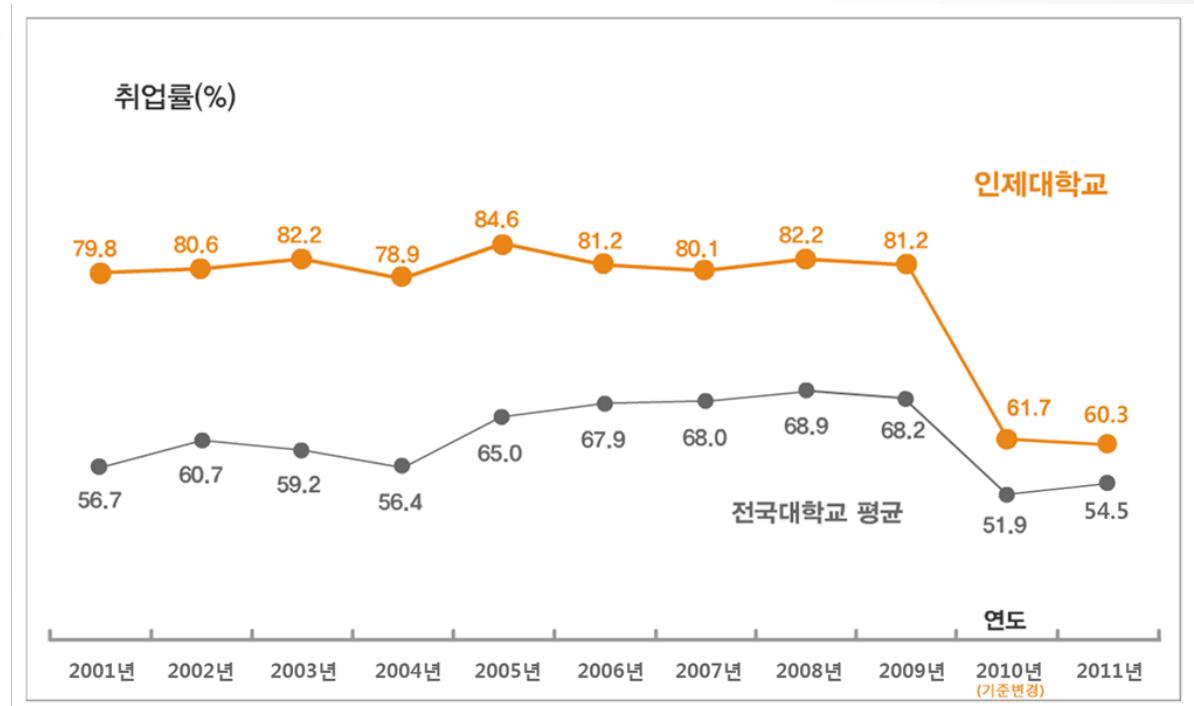
동명대	10명
포스텍	13
광주대	14
서남대	15
울산대	17
영동대	22
경희대	24
한림대	24
경일대	25
삼육대	26
한국기술교육대	26
동신대	27
위덕대	27
진주국제대	27
영산대	28
인제대	29
한라대	29
동국대	30
연세대	30
이화여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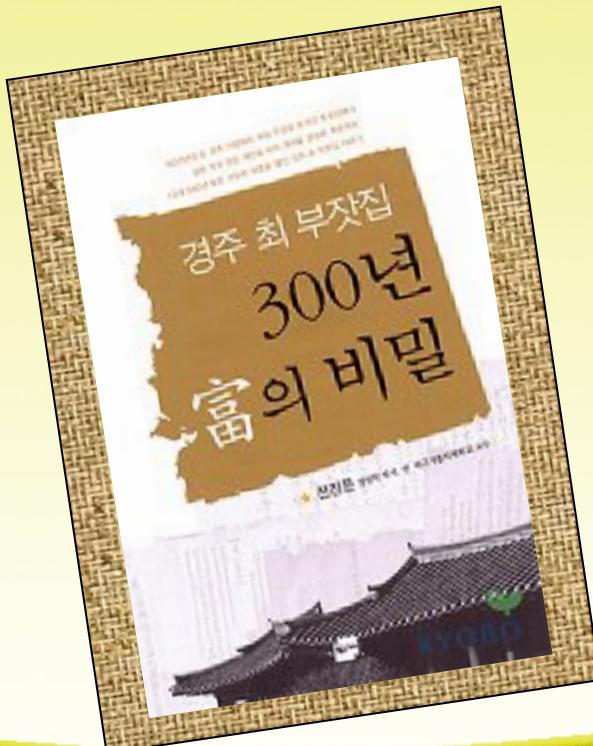
2011년 취업률 경남, 울산 1위, 전국 8위



8년연속
취업률
최우수
대학



경주 최 부잣집 노블리스 오블리제



‘경주 최 부자’는 정무공 최진립(1568-1636)의 손자 최국선(1631-1682)으로부터 최준(1885-1970)까지의 10대 300년간의 만석꾼 부자들을 말한다.



프롤로그: 오늘에 다시 최 부자를 찾는 까닭

“우리나라에 존경할만한 부자는 있는가?”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10대 300년 동안 이웃을 사랑하며 만석꾼의 부를 지킨 경주 최 부자의 비밀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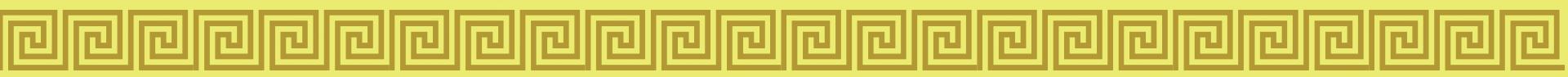


중세 이탈리아의 매디치 가문

피렌체의 코지모 메디치(1389–1464)와 로렌조 메디치(1394–1440)가 가문을 일으켜 참주가 되어 실권을 잡고 무역, 금융을 장악하여 코지모 3세(1642–1723)까지 200여 년간 권력과 문화가 동거하면서 르네상스의 바탕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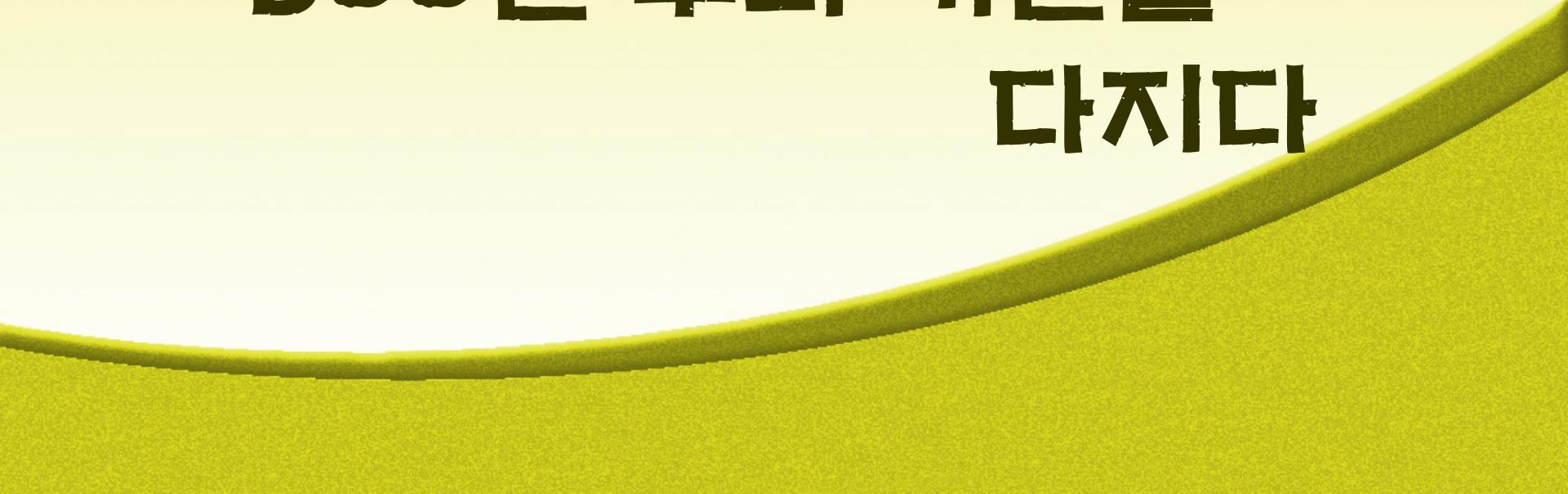
창업(創業)과 수성(守成)

- 창업이 어려운가, 수성이 어려운가?
 - ✓ 당태종 이세민(李世民)은 통일 후 대신에게 창업과 수성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를 물었다.
 - 방현령은 창업이 어렵다고 하고, 위징은 수성이 더 어렵다고 하였다.
-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가족기업 1/3 생존기업의 12%(3.9%)만 3세대에 생존 3세대 생존기업의 4%(0.15%)만 4세대 생존
(William O'Hara, 장수기업 연구가, <CENTURIES OF SUCCESS>)
- 현대기업의 평균수명(Life Cycle)은 30년에서 15년(벤처기업의 등장)
 - 수성의 어려움



제 1 부:

집안을 일으키고
300년 부의 기반을
다진다



만석꾼의 가문을 일으킨 최진립 장군

■ 천석꾼, 만석꾼이란 어느 정도의 부자인가?

1두락(마지기)당 소작료 10두(1석, 20두 생산의 반) 받음.

만석꾼은 1만 두락, 1두락 2-300평이므로 2-3백만평 규모
(여의도 3배의 규모)

■ 임진, 정유, 병자 삼란의 공신 정무공 최진립(1568-1636)

경주 최씨 사성공파[조선 초 성균관 사성을 지내 최예의 6대손]

25세 때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자 의병으로 가담하였고,

159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정유재란(1597) 때 전공을 세우고,

함경도 경원부사(1614), 경흥부사(1626)를 역임하였고,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기도 했으며, 병자호란(1636) 때

69세의 나이로 싸우다 순국하고 병조판서를 증직받았으며,

정무(貞武) 시호와 불천위를 받은 충신이다.

* 경주 최 부잣집 가계도 *

- 정무공 최진립(1568-1636)
- 최동량(1598-1664) : 동윤, 동열, 동량, 동길, 동경, 동후
- 최국선(1631-1682) : 국선, 국침, 국원, 국규
- 최의기(1653-1722) : 인기(종가, 취수헌가), 의기(교촌파), 성기
- 최승렬(1690-1757) : 승렬, 승절
- 최종률(1724-1773) : 무자(동생 승절의 외아들 종률 입양)
- 최언경(1743-1804) : 무자(사종 종만의 아들 언경 입양)
- 최기영(1768-1834) : 기영(외동)
- 최세린(1791-1846) : 세린, 세구
- 최만희(1832-1879) : 무자(세구의 아들 만희 입양)
- 최현식(1854-1928) : 현식, 현교
- 최 준(1885-1970) : 윤, 완, 순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충효당 옆 노거수 (임란때 정무공이 직접 심었다는 화나무)



300년 만석꾼 집안의 첫 번째 비밀: “정경분리정신”

- 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만을 갖는다
※ 【가훈1】 :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 <조선의 과거제도>
 - ✓ 유생: 사마시(司馬試, 소과), 문과(대과)
 - ✓ 한량:과, 중인계급: 잡과
 - ✓ 사마시는 진사, 생원(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 초시(한성시 200명, 향시 500명), 복시: 100명 선발
- 1525년(중종20년) 국가 사족규정;
‘친가 외가 가운데 4대 조상 안에 과거나 음서로 문무반 6품 이상 배출한 가문의 후손과 생원과 진사’로 규정

진사시험도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 진사를 하라고 한 이유

- ✓ 조선시대에는 양반의 지위를 유지해야 사람대접을 받고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
- ✓ 지식이 없는 부자는 천박하며 또한 오래 재물을 지킬 능력이 없다.

● 벼슬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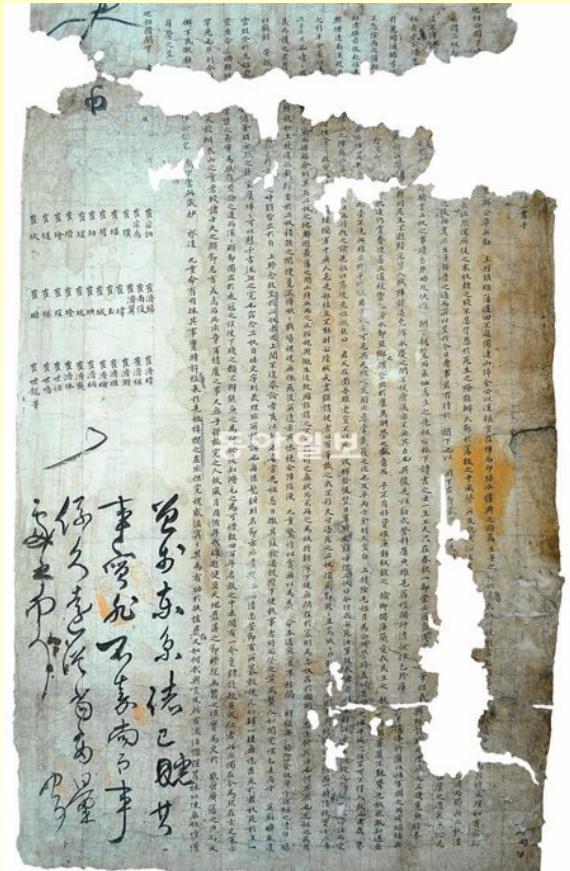
- ✓ 벼슬을 하면 정파에 휩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문을 오래 지킬 수 없다.
- 최씨 가문에서는 12대 간에 문과 2명, 진사 4명, 생원 9명으로 15명이 합격했다.

300년 만석꾼 집안의 두 번째 비밀: "한국적 공동체정신"

- 한국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를 실천한다
※ 충노 옥동, 기별의 제사와 불망비

- ✓ 최진립의 충성스러운 노복인 옥동과 기별은 임지를 따라 다니면서 온갖 궂은 일을 다하고, 끝내는 주인을 따라 전장에서 같이 죽었다.
- ✓ 최씨의 후손들은 정무공의 제사를 물린 뒤 이 두 노복을 위해 제사를 지내 주었다.
- ✓ 최근에는 이 두 노비를 위해 <충노불망비>를 세워주었다.

전사 노비 표창 요청 상서



- 경주 최 부자집에서는 지금도 매년 충노 2명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 전통의 기원을 보여주는 상서 (1812년)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해 공개됐다.
- 병자호란 때 주인 정무공 최진립 장군을 돋다 죽은 노비들을 국가의 충신으로 기려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이다.
- 동아일보 기사(2013.3)

가업의 이념(경영이념) 정립

■ 최 부잣집 가훈의 종류

1. 가거십훈(家居十訓): 가정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 윤리
2. 가훈(家訓): 대내외적으로 이 가문이 지켜야 할 6가지 도리

● 내남면 이조리의 지리적 특성:

- ✓ 속칭 가암, 포회(浦會), 개무덤('개울모듬')
(형산강 상류의 물이 모이는 기름진 땅)

300년 만석꾼 집안의 세 번째 비밀: “새로운 농사법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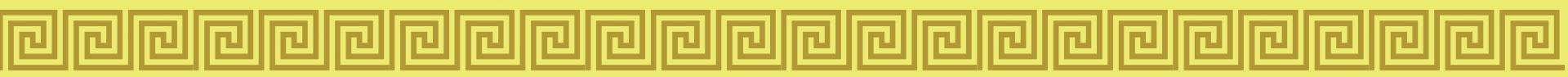
- 농토를 개척하고, 함께 일하고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였다

삼란(임진, 정유, 병자) 이후 흩어진 유랑민을 후한 인심으로 모으다

1. 재지지주(在地地主): 지방에서 함께 살았다
2. 하천 치수, 개간: 농토 확보
3. 이양법 도입: 치수를 하였기에 가능
4. 병작반수: 소작인들에게 일할 의욕 고취

300년 만석꾼 집안의 기본철학, 가거십훈 (家居十訓)

- 1) 인륜을 밝힌다(明人倫)
- 2)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를 다한다(事親孝)
- 3) 임금을 사랑함에 충성을 다한다(愛君忠)
- 4) 가정을 잘 다스린다(宜室家)
- 5) 형제 사이에는 우애가 있다(友兄弟)
- 6)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다(信朋友)
- 7) 여색을 멀리한다(遠女色)
- 8) 술에 취함을 경계한다(戒醉酒)
- 9) 농업과 장업에 힘쓴다(課農桑)
- 10) 경학을 익힌다(講經學)



제2부:

원칙을 지키는 경영으로
300년 재산을 일구다



300년 만석꾼 집안의 네 번째 비밀: “중간관리자의 횡포 배제”

- 가족중심 경영으로 마름(중간 관리자)의 횡포를 막았다.
※ 마름을 두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이 마름의 횡포가 극심했다)
- ✓ 마름의 횡포 : 수보기, 말질, 장리(곱장리)등

300년 만석꾼 집안의 **다섯 번째 비밀**: “**계획경영의 실천**”

- 양입위출: 들어올 것을 헤아려 나갈 것을 정한다.
 - ※ 이재의 기본 원리 양입위출(量入爲出), 예산정신 엿보임
- ✓ 경영은 계획(plan), 실천(do), 평가(see)의 반복이며 이중에서 계획이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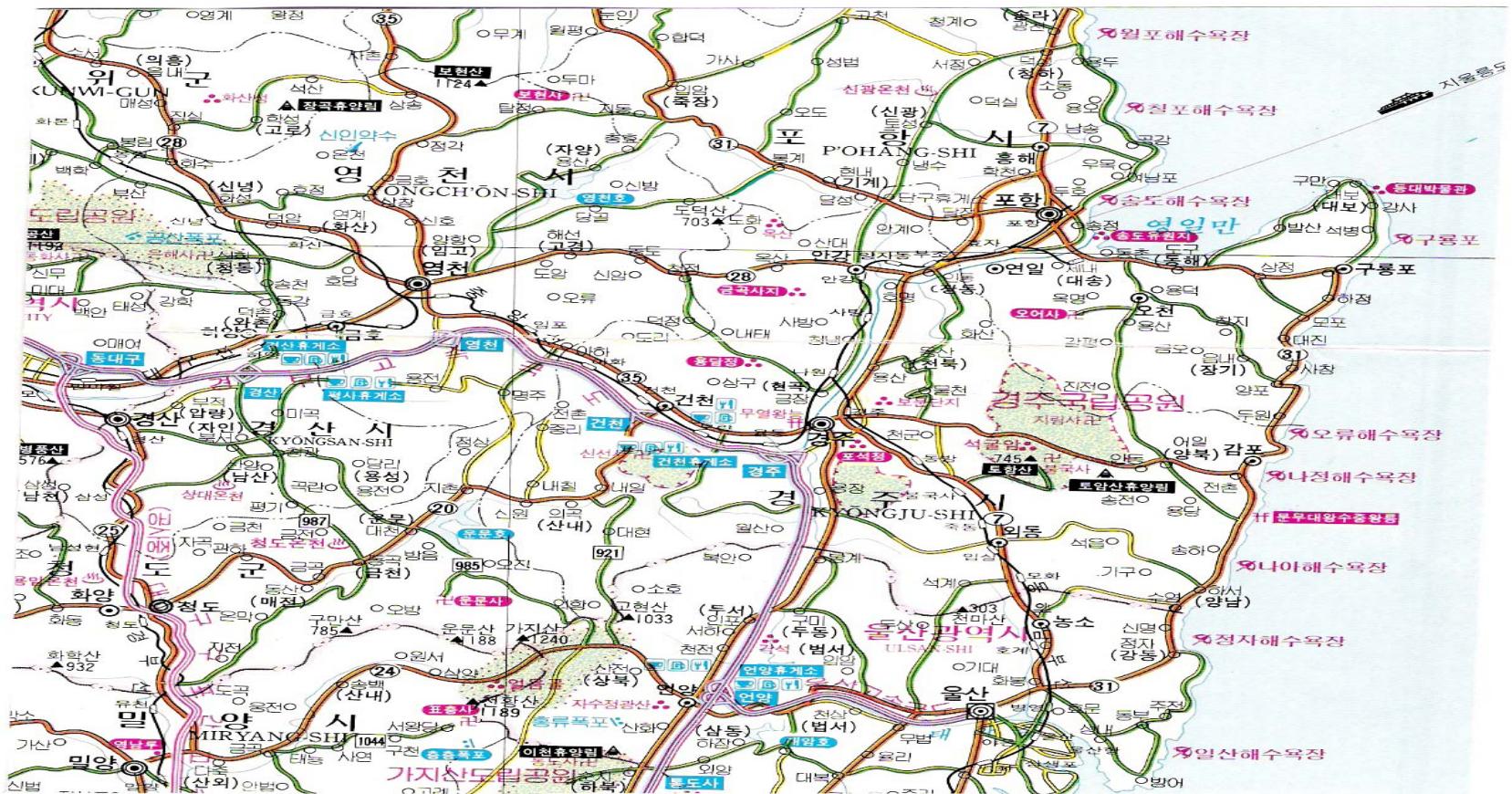
300년 만석꾼 집안의 여섯 번째 비밀: “사회적 책임정신 실천”

-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정신(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
 - ※ [가훈 6]: 사방 백 리 안에 굽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 ✓ 사방 백 리를 공동체로 인식
(최 부자의 토지 분포,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 최 부잣집의 가주, 교동 법주.
최진립의 손자 최국선은 사옹원 참봉을 지내며 궁중의 양조 비법을 배워 말며느리에게 전수시켜 오늘날까지 가주로서 이어옴.

교동 최 부잣집 (교동법주집, 작은집)



경주를 중심으로 한 사방 100리의 영역



300년 만석꾼 집안의 일곱 번째 비밀: “재산증식의 정당성”

■ 재산 증식의 사회적 정당성

※ [가훈 4]: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 ✓ 조선기에는 평균 4년마다 흉년이 등
흉년기에는 땅을 많이 살 수 있었다
-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부의 축적의 정당성
- 견리사의(見利思義)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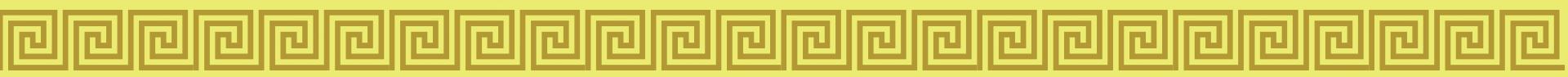
300년 만석꾼의 여덟 번째 비밀: “적정이윤의 추구”

- 지나치게 재산을 불리지 않는다

※ [가훈 2]: 재산을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 ✓ 여기서 ‘재산 만석’이라 함은, 소작료 수입이 1만 석임을 말한다
- ✓ 최부자가 땅을 더 많이 살수록 소작인의 소작료 부담은 낮아진다

- ◆ 적정이윤의 추구,
오히려 부가 모이고 오래 유지됨



제3부:

사회적 윤리를 실천하며
300년 재산을 지킨다



300년 만석꾼 집안의 아홉 번째 비밀: “근검절약정신의 실천”

- 청백리 정신에 바탕을 둔 근검절약 정신을 실천

※ [가훈 5]: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 ✓ 근검절약의 생활화
- 하늘은 공평하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
부는 얄었으나, 아들이 귀했다.

300년 만석꾼 집안의 열 번째 비밀: “새 명당으로의 이사”

- 이조리 땅을 버리다.
 - ✓ 가문의 새로운 중심지, 경주 교동(교리)
천하 명당 경주 교리
(임수는 있으나, 배산이 없었다)
 - ✓ 집 뒤로 인공 언덕을 쌓고,
느티나무를 심어 비보했다
- 이루기 힘든 일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다.
※ 집 용마루를 향교보다 5자 이상 낮추다

경주 최 부잣집의 전경



교동 죄 부잣집 안채



교동 최 부잣집의 정문 (밖에서 본 모습)



교동 최 부잣집 정문 (집 안에서 본 모습)



교동 최 부잣집 정원의 물학



300년 만석꾼 집안의 열한 번째 비밀: “과객을 통한 정보의 수집과 홍보”

-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하고 항상 후하게 대접한다.

※ [가훈 3]: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 ✓ 매년 천 석 정도를 접빈에 사용함.
- ◆ 오늘날의 정보 활용, PR, 홍보.

300년 만석꾼 집안의 열두 번째 비밀: “겸손한 자세”

- 자신을 낮춰 상대가 경계하지 않도록 한다
※ 최세린의 아호 “대우(大愚)”

장자(莊子)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자는 대우가 아니고, 자기의 미혹함을 알고 있는 자는 대혹이 아니다.”

- 벼슬을 향한 허망한 꿈
최세린, 최세구 형제는 똑똑하여 벼슬을 향한 꿈을 잠시 가졌으나 오래 살지 못하였다.

300년 만석꾼 집안의 열세 번째 비밀: “이웃에게 덕을 베풀”

- 덕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것이 위기를 넘기게 했다.

※ 활빈당의 난리를 피하다.

- ✓ 이웃사람과 소작인들이 앞장서서 설득하고 막아 주었다.

교동 문천 앞에 있는 사마소

[경주 인근의 사마(진사, 생원)들의 시회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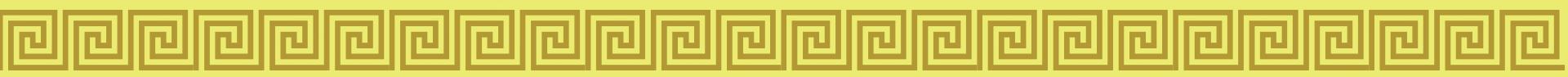
300년 만석꾼 집안의 열네 번째 비밀: “차선(2등)에서도 만족한다”

2등을 해도 만족한다.

※ 최현식의 아호 “둔차(鈍次)”



- ✓ 서경(書經)에, “자만하는 자는 손해를 부르게 되고, 겸손한 자는 이익을 받음이 하늘의 도이다.”(滿招損, 謙受益, 時乃天道)



제4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300년 부를 버리다



■ 마지막 최 부자, 최준(1884-1970)

- ✓ 전 재산을 바칠 필생의 사업을 찾은 마지막 최 부자.
- ✓ 면암 최익현, 신돌석, 박상진 등에 영향을 받음.
백산 안희제, 인촌 김성수와 교유
- ✓ 경주고적보존회(경주박물관의 전신) 창립
- ✓ 동경통지 재간행

■ 독립운동 재정지원, 백산상회.

백산상회를 주식회사로 바꾸고 사장에 취임함.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대며 120만원의 부채를 떠 안고 문을 닫게 됨.

✓ 기미육영회(해외유학 장학회)

의친왕 이강의 도움, 식산은행에서 일부를 탕감해 주고 장기 저리로 변제
하도록 도와줌.

최준이 자음을 대고 최남선이 편집하여
재발간한 동경통지
(경주에 관한 역사적 기록)



“이대도강”의 교훈 : 형제간의 우애

※ 이대도강(李代桃僵):

복숭아나무 대신 자두나무가 쓰러진다

- ✓ 최준(독립유공자)의 동생 최윤이 형님 대신에 중추원 참의를 맡음
(일제에 협조)
- ✓ 동생 최완(독립유공자)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병사(1926)
- ✓ 막내 동생 최순은 백산상회 일을 보다가
해방 직후 서북청년단에게 암살당함

마지막 최 부자 최준과 그의 동생 최윤



300년 만석꾼 집안의 열다섯 번째 비밀: “재산의 사회적 환원”

-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쁘게 버리다
- 300년 동안 모은 재산으로 학교를 세우다
해방하자 마자(1945) 대구에서 대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 유지와 노력하여 대구대학 설립
-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과 영남이공 대학의 전신인
계림대학에 전 재산을 투입하고 300년 부를 마감하였다.
- ✓ 마지막 남은 집 두 채까지 학교 재단으로 넣었다.

- 에필로그: 300년 만에 지는 노을
- 1970년 최준이 죽자 사랑채(윗채, 아랫채) 불탐

✓ 가훈의 현대적 의의

1.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정치적 중립
2. 재산은 만 석 이상 지니지 마라: 적정이윤 추구
3. 고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정보활용과 PR
4.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재산축적의 정당성
5. 여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근검 절약정신의 생활화
6.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신

300년의 부를 마감하고 불탄 최 부잣집 사랑채의 주춧돌



불타기 전과 복원된 후의 최 부잣집 사랑채의 모습

(최근에 경주시에서 한옥마을 조성계획으로
윗 사랑채가 복원되었다)



정주 최 부자(사성공파, 가암파)의 조상들의 내력을 기록한 월성세헌

